오월예술 견인한 '금남로의 예술가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기억지도'
내달 25일까지 회화·설치 등 선봬
저항시인 김남주·오월광대 박효선
1995년 안티비엔날레 '만장' 눈길
"민주화에 대한 열망 예술로 승화"

금남로는 5·18민주화운동 중심지로 단순한 상업지구를 넘어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했다.

광주 예술가들은 금남로에서 펼쳐진 역사의 순간들을 근거리에서 체감하고 섬세하게 기록했다. 금남로와 그 인근에서 있었던 폭력, 학살, 스산함과 정적, 죽은 자, 오열하는 어머니, 밥을 나누며 연대한 사람들, 거리에 울려 퍼지는 시민들의 함성, 먹먹한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 등 당시를 기억하며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무대에 재연했다. 오월예술을 이끈 동력이 된 금남로를 조망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 기획전 '기억지도_금남로의 예술가들'을 오는 8월 2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 방식으로 구성돼 각 분야의 주요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초대작가는 시인 김남주, 화가 강연균, 연극연출가 박효선, 사진작가 나경택, 민중음악가 정세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조각설치작가 박정용 등 7인(팀)이다. 이미 고인이 된 예술가부터 깊은 주름처럼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까지 한 자리에 모은다.

전시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시로 표현한 김남주의 주요시집과 함께 감옥에서 아내에게 쓴 편지, 육필시, 김호석과 김경주 등 미술인들이 그의 정신을 형상화해 제작한 시집 표지의 원화를 볼 수 있다. 김남주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족해방을 위해 온몸을 바친 민족 시인이다.

김남주는 1979년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투옥돼 15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 안에서 우유갑이나 화장지 등에 시 360여 편을 썼다. 투옥 중 국내외의 석방 운동에 힘입어 1988년 12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1994년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참상을 그림을 담아낸 강연균의 회화 작품이 눈에 띈다. 1980년 당시 금남로 인근에서 화실을 운영하던 강연균은 5·18민주화운동을 목격하고 당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계엄군의 만행으로 처참히 죽어 갔던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회색 조의 대형 작품 '하늘과 땅 사이' 연작이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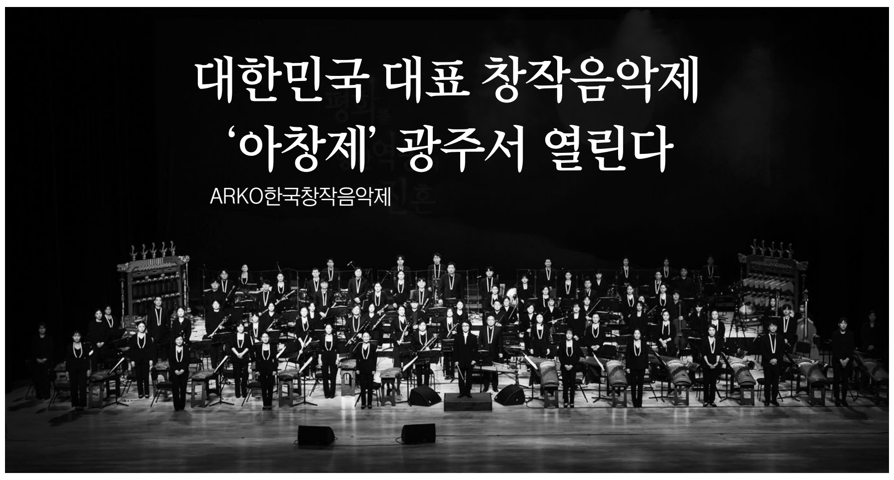
특히 1995년 개최된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 반대하며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가 주최한 통일미술제(안티비엔날레)에 전시됐던 '하늘과 땅 사이 4'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작품은 5·18 묘역에서 만장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며, 전통 제의의 형식을 빌려 현대적 설치미술로 표현한 작품이다.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달래는 이 작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작품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박정용 작 '기억하고 새겨야 할 것들'.

연극으로 1980년 이후 인간적 갈등과 사회적 현실을 드러낸 오월광대 박효선의 작품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980년대 대표적 민중가수 정세현의 노래, 당시 저항의 순간들과 광주의 진실을 사진에 기록했던 나경택의 사진,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인쇄물과 영상을 제작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국내외에 알렸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자료 등을 감상할 수 있다. 44년에 걸친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따라가며, 역사적 순간들을 예술로 재구성한 박정용의 조각설치작품으로 전시는 끝난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에서 발생한 오월문화운동을 주도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아카이브를 소개하고자 한다"며 "그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감성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기회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특별 연주로 대한민국 대표 창작음악제 'ARKO한국창작음악제'가 25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내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 연주
광주연합합창단 협연 등 눈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음악제 'ARKO한국창작음악제(아.창.제)'가 광주를 찾는다. 광주예술의전당이 공동 주최하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 특별 연주회가 25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아창제는 기존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는 한국 음악시장에서 창작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작곡가와 지휘자, 연주자들이 창작 음악을 부담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관현악 축제이다. 특히 그동안 작품공모에 선정된 국악부문 관현악 작품들을 모아 지역에서 레퍼토리 무대를 선보이는 기획연주회 'with 아창제'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공연을 시작으로 2023년 목포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국악단과 함께 아창제 작품을 지역에서 연주한 바 있다.

올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with 아창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서 개최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업 기획한 것으로 역대 아창제 선정작 중 국악창작관현악의 매력을 가득 담은 다섯 작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제11회 선정작 김기범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천마도' △제13회 선정작 손다혜의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 △제11회 선정작 양승환의 대금 협주곡 1번 '린포제' △제11회 선정작 이예진의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기우' △제9회 선정작 이정호의 합창과 진도씻김굿, 국악관현악을 위한 '진혼'이 연주될 예정이다.

광주연합합창단은 광주시립합창단 및 광주동구합창단(지휘 박병국), 광주서구여성합창단(지휘 김성진), 광주북구합창단(지휘 오준혁), 광주남성합창단(지휘 이준) 등이 모여 만든 합창단으로 약 150명 내외로 구성됐다.

공연은 7세 이상(2017년생 이전 출생자) 관람 가능하다. 객석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 누리집(1577-7890)을 통해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인기 캐릭터와 함께 하는 애니메이션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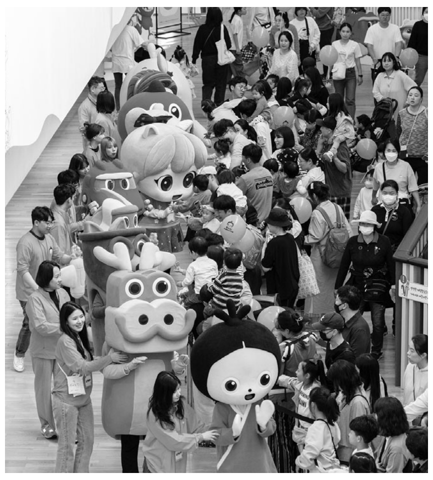
ACC '제3회 애니메이션 모꼬지'
26~28일 ACC 어린이문화원 일대
상영·캐릭터 퍼레이드 행사 다채

국내외 인기 애니메이션을 한 자리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대축제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 일대에서 '제3회 ACCF 애니메이션 모꼬지: 찾아라! 애니메이션 친구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모꼬지'는 애니메이션 창제작 생태계 구축 및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한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경주)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을 비롯 국내 관련 기관·기업·대학과 일본, 대만 등 해외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참여한다.

먼저 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는 국내외에서 우수한 품질과 스토리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9곳과 기술기업 4곳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지난해 10월 제2회 ACC재단 애니메이션 모꼬지 축제에서 캐릭터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ACC재단 제공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참여 캐릭터는 쥬라기캅스를 비롯해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상상꾸러기 꾸다 △두다다쿵 △레인보우버블젬 △타타와쿠마 △티시태시 △샤샤&마일로 △우당탕탕 아이쿠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샤이닝스타 △출동! 슈퍼윙스 등이다.

행사는 애니메이션 상영회와 각종 체험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타운, 캐릭터 퍼레이드 등으로 구성된다.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참여 기업의 극장 상영작과 TV 인기 방영작 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힘든 독립 애니메이션 우수 초청작 6편도 만날 수 있다.

지역 기관·대학과 연계한 특별관도 마련된다. '미디어아트관'에서는 호남대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콘텐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으로 운영되는 '실감콘텐츠관'에서는 최신 문화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일본 TBS방송국 주최로 아시아의 우수 단편 영상을 시상하는 '디지콘6 아시아 어워드' 수상 작품과 대만 타이베이미디어제작협회(TMPA) 작품들도 전시·상영된다.

아울러 7월 27일 ACC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사)한국애니메이션학회, (사)한국캐릭터학회와 연계한 '애니메이션 미래비전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국제 관광박람회' 홍보 최우수상

명소·관광 프로그램 등 눈길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한 동구 관광홍보 부스가 2024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KITS)에서 다양한 테마와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로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제9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한 행사로 국내·외 기관 및 업체 446개 부스 참가, 약 2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재단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축제(충장축제, 광주버스킹월드컵, 무등산인문축제) △동구 대표 명소(동구 9가지 보물, 빛의 분수대, 빛의 음성) △동구DMO 프로그램(덕질쌀롱,월간 사람여행, 광주 가보자 GO) 등을 선보여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도선인 기자